

소년감별소

-소년에 대한 재구성을 기각한다

김성대

1

모두와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었군요. 이국의 언어를 처음 배우듯이. 인사말부터. 쉬운 말부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군요. 돌아서고 나서야 떠오르는 말들. 내가 나를 재현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귀에서 멈추지 않고 입술에서 다시 잔물결처럼 시작될 것인데요

: 의자는 모서리가 없고 소년은 불가능한 자세를 허락받는다 모두의 눈앞에서 아무도 몰래 이루어지는 시기. 소년의 일이 저 밖의 일들처럼 소년의 무릎에 내려앉는다 소년이란 자신을 만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라. 라고 소년을 잘못 이해한다

나는 나에 닿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밖에 있습니다. 만져 보아도 거기 내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 아니었다는 것 아닐 거라는 것. 나는 누구와도 눈을 맞출 수 없습니다. 도와 달라고 말할까 봐 죽고 싶습니다.

: 세상을 찢고 들어온 태내에서 악몽이었던 아이사내. 소년은 자신의 몸이 의심스러워 자꾸만 훼손하는데 자신을 굶는 손 밖에서 오는 축축한 꿈 같은 것들. 맨 처음 꾸었던 꿈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도 소년은 남는다 소년은 몽정을 해 본 적이 없다

3

너무 가깝잖아요. 이걸 마치 껴안으려는 건가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무수한 우리들, 시간을 나누려거든 무한이 필요하겠어요. 모두 같은 말로 끝나더라도 여러 개의 주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거짓만이 우리를 연속이게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몇 달 후 우리의 기억은 일치했어요.

: 소년은 긴 손가락을 세우는 그들을 본다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감별이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보겠다는 뜻인가 혼해 빠진 아이사내를 발견하지만 자신을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소년은 없었다 소년이 살고 싶은 소년은 조금도 없었다

근대의 문학제도

‘등단’과 ‘신춘문예’ 연관어 분석

신춘문예
수상작
신인상
시인 이기리
공무원
예비작가
시조시인회의
사람들
시 부문 신인상 문학상
심사위원들
시집 달콤중독
시운등
문예지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노효지 시인
장대나무숲
김수영문학상
문기주
가람시조문학상
광주문학상 수상
김동석 시인
코로나
이선욱 시인
홍타운
박덕규 시인
윤영희씨
순문학
강은진 시인
신진 작가들
문청들
시상식
취재부장

등단
소설가 공모전
이듬해
당선 소감
작품 활동
응모작 작품들
신문사 작가들
심사위원
문청들
시상식
취재부장
당선작
신인들
단편
신인상
심사평
당선자들
코로나19
소설집
사람들
시조집
엄세원
응모자
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단순하지 않은 마음

강우근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조약돌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작은 감기야, 라고 말해도 창백한 얼굴은 일회용 마스크처럼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다.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눈병에 걸렸고, 볼에 홍조를 띤 사람이 되었다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병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걸어오는 우리처럼 살아가
다가 죽고 만다.

말끔한 아침은 누군가의 소독된 병실처럼 오고 있다.

저녁 해가 기울 때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감자튀김을 먹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며 말한다. "정말 끝내주는 경기였어." 나는 주저앉은 채로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밤의 비행기는 푸른 바다에서 해수면 위로 몸을 뒤집는 돌고래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매일 다른 색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있다.

버스에서 승객들은 함께 손잡이를 잡으면서 덜컹거리고,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는 차장에 빗방울이 점

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편의점에서 검은 봉투를 진 손님들이 줄지어 나오지.

돌아보면 옆의 사람이 없는, 돌아보면 옆의 사람이 생겨나는. 어느새 나는 10년 후에 상상한 하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쥐었다가 펴는 손에 빛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보고 있지 않아도 그랬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아직 살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마스크, 소독된 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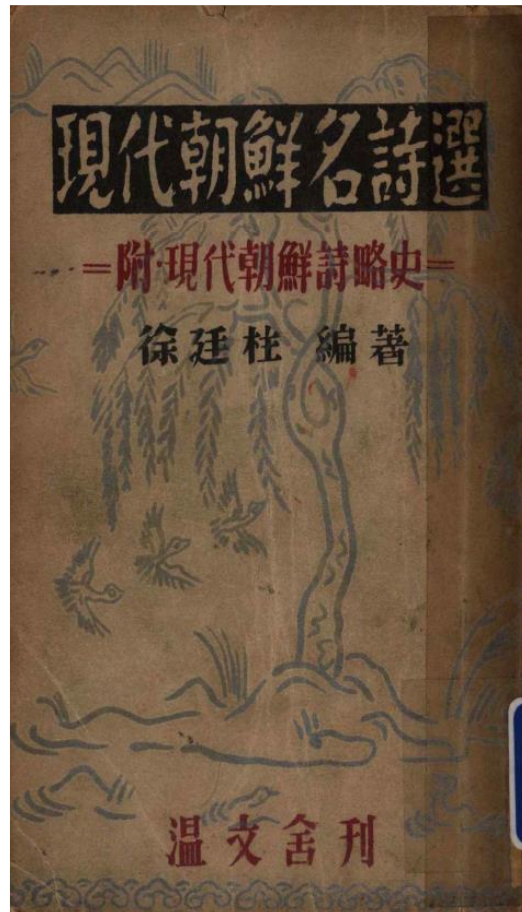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투영한 詩語 돋보여

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토를 가려 한다. 한 편의 시는 매번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 그 길에 앞장 설 신예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험의 불꽃일 것이다. 본심 대상작인 열두 편의 작품들은 고르게, 시적 모험의 흔적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 지구적 재앙의 영향인지 고립된 현실에 대한 암중모색 속에서도 희망 혹은 미래에 대한 사유가 눈에 띄었다. '자두' '소문은 눈을 즐겁게 해요' '단순하지 않은 마음'을 놓고 오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자두'는 **젊은이들의 일상과 세태**를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디테일한 감각에서 삶에 대한 애착과 부정 이 동시에 느껴지며, 절제된 감정에서는 숨겨진 절망과 분노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자두'라는 물성에 대한 천착과 그 상징성은 이 시의 비유적 깊이를 더해준다.** 그러나 이 디테일한 묘사가 때로 산문과의 경계를 묻게 했다. '소문은 눈을 즐겁게 해요'는 검은 봉지 속 고구마에서 싹튼 순을, 실체 없는 소문에서 돋은 뿔로 비유하고 있다. "아낌없이 썩은 고구마가 달려 나왔"다는 통찰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소통 방식을 풍자한다.** 모범 답안과도 같은 시적 완성이 오히려 낮익음으로 다가왔음을 밝혀둔다.

최종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마음'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일일(日日)의 단일하지 않은, 갈래와 가닥이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내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주목한 작품이다. **돌발적이고, 바뀌고 달라지며, 충돌하고 흩어지는 일상, 그것이 곧 우리 존재의 본모습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한다.** "마스크", "소독된 병실"과 같은 시어를 통해서도 **코로나 대유행의 사회적 상황을 투영하고도 있다.** 무엇보다 '마음'과 같은 관념어를 제목으로 내세우면서도 **정공법으로 개진해가는 뚝심**에서 앞으로 펼칠 시작(詩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게 했다. 한국 시단의 일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당선을 축하한다.

《현대조선명시선》 (서정주 편, 온문사, 1950)



朴鍾和—號、月灘。一九〇一年、서울
出生。徽文高普卒業。一九二一年、羅稻
香、李相和、洪露雀、朴英熙等과 같이
文藝同人誌「白潮」創刊。詩作과小說을
兼하여 詩集은「黑房秘曲」「青磁賦」
長篇小說로「錦彩의피」「待春賦」「民
族」等이있다。
詩전小說이전「民族」은 그의信仰이
오、「傳統」은 그의唯一無二한依據處
임을 볼수가있다。解放後名實共히 民
族陣營文壇의代表格이되어있다。

<現代朝鮮詩略史>를 통한 서정주의 시사구성

1. 초창기(개화계몽기)

최남선 <해(海)에게서 소년에게>

새로운 형식에 새로운 내용

2. 낭만파전기

목가풍의 전원주의, 휘트먼적 의지로 발전시킨 주요한

7.5조의 형식에 낭만성을 갖춘 김억

“감상의 일면만을 금붕어처럼 유영하여 뒤에는 그 얽은 애조를 칠오조 등의 고식적인 그릇에 담기에 만족”

3. 낭만파후기(백조파전후)

오상순, 변영로가 주로 활동한 《폐허》

박종화, 홍사용, 이상화, 박영희의 《백조》

《금성》의 양주동, 《개벽》의 김소월 그리고 고월 이장희

<現代朝鮮詩略史>를 통한 서정주의 시사구성

4. 푸로레타리아예맹파와 그 경향파

백조출신의 박영희+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김기진+임화

《문예운동》이나 《집단》같은 매체를 발간. 조벽암, 윤곤강 역시 경향파에 속함.

엄청난 수에 비해 발군의 작품이 없는 것은 이념 때문이라 지적

5. 순수시파

선명한 색채감각의 정지용을 위시해 정인보, 변영로, 박용철, 음악적 리듬과 정서전달에 치중한 김영랑, 신석정, 이하운이 참여한 순수시동인지 《시문학》을 바탕으로 이들을 순수시파라고 나눔

“시를 쓸 줄 모르는 이 나라 시단에 한 개의 시적 표현도의 노력의 아름다운 결과가 내재”

6. 주지파와 초현실파

김기림 TS.엘리엇과 같은 영국의 주지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주지주의의 실패 이후 도입된, 잠재의식과 내심의 독백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둔 ‘초현실파’로는 이상.

<現代朝鮮詩略史>를 통한 서정주의 시사구성

7. 인생파

오장환과 김달진, 서정주 역시 참여한 《시인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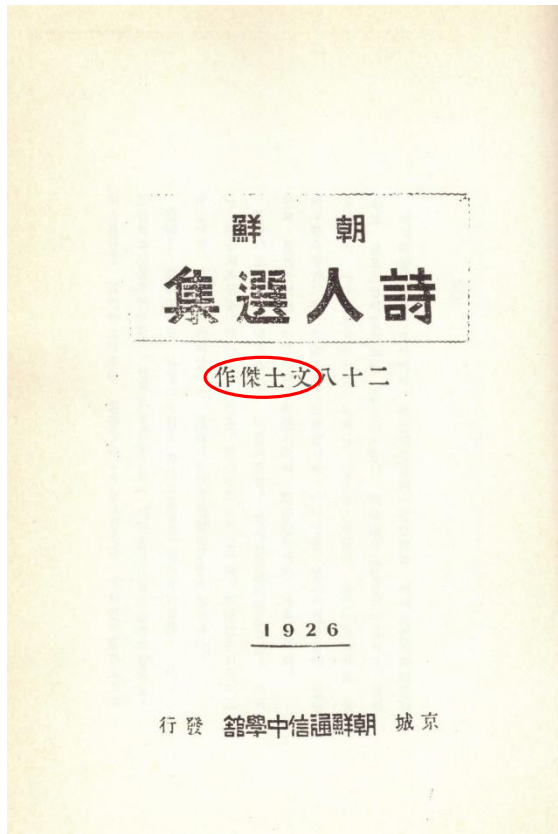
정지용의 감상적 기교나 경향파의 이데올로기 어느 쪽도 아님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

《낭만》, 《시인춘추》, 신석초, 윤곤강, 이육사, 김광균, 백석, 장만영 등이 활동한 《자오선》 역시 같이 분류

8. 자연파

《문장》지에서 데뷔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을 지칭하는 구분.

《조선시인선집》 (조선통신중학관,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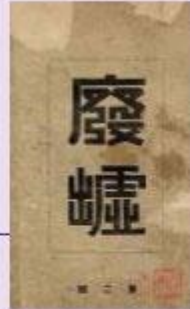


시인들의 **자선작품**을 원칙으로 수록
즉, 작품 목록에 일관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음

1920년 전후의 문예 동인지



창조(創造)
1919



폐허(廢墟)
1920



장미촌(薔薇村)
1921



백조(白潮)
1922



금성(金星)
1923



영대(靈臺)
1924

문학 동인지 및 매체	시인	수록작품
창조	이일	나의 눈물, 박명아, 애수, 어리석은 반역, 지내가는 노래
	오천석	인류, 나는 거름이 되리라, 혼인
	주요한	비소리, 황혼, 아기의 기도 1. 2. 3, 해의 시절, 단장
	김탄실	추억, 거룩한 노래, 만년청, 오월의 노래, 언니의 생각
폐허	김억	꿈의 노래, 우정, 가을, 흰달, 설은 노래, 신미도 삼각산, 지는 봄, 해안에서
	남궁벽	풀, 생명의 비의, 대지와 생명, 대지의 찬
	변영로	버려지도 실타하올 이몸이, 생시에 못 뵈을 님을, 봄비, 논개, 하일정취, 어느날
	오상순	폐허의 제단, 방랑의 마음 1. 2, 어둠을 치는 자, 허무혼의 선언
	황석우	석양의 꺼진다, 벽모의 묘, 세 결심, 망모의 영전에 바트는 시, 참혹한 얼굴이여
백조	김기진	고대하는 마음, 백수의 탄식, ENNUI
	이상화	말세의 희탄, 나의 침실로, 이중의 사망, 단조, 가을의 풍경
	박영희	꿈의 나라로, 그림자를 나는 쫓치다, 어둠 넘어로, 유령의 나라로, 월광으로 짠 병실
	박종화	정밀, 사의 예찬, 애도아침, 흑방비곡
	홍사용	묘장, 그것은 모다 꿈이었지마는, 해의 시절, 단장
	노자영	장미, 보름달, 버들피리, 반달, 봄밤
금성	양주동	꿈노래, 영원의 비밀, 소곡, 악도(惡禱), 풍경, 별후(別後)
	유춘섭	낙엽, -에게, 춘원행, 겨울밤의 홍소(哄笑), 나의 옛집에 도라오도다
	이장희	동경, 하일소경, 고양이의 꿈, 봄은 고양이로다, 청천의 유방
	백기만	산촌모경, 은행나무 그늘, 청개고리, 고별, 실제
	손진태	생의 철학, 환상, 파리, 병든 강아지
개벽	김형원	백골의 난무, 벌거숭이의 노래, 불순한 피, 숨쉬는 목내이
	김정식	월색, 엄숙, 찬저녁,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집생각
	박팔양	거리로 나와 해를 견우라, 향수, 신에 대한 질문, 공장,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 아츰, 나 그네
	조명희	경이, 봄잔디밭우에, 성숙의 축복, 무제, 어둠의 겹에게
	김동환	봄노리, 구십춘광, 북청물장사, 곡폐허, 국경의 밤, 가는 가을
조선문단	조운	이 세기의 시인아, 한번, 서럽, 한줄의 소리나마, 향촉
	이은상	황혼의 묵상, 물결의 유언, 늙어지오라, 흙에서 살자, 심장, 나와 오늘
	이광수	기도, 행로탄

운모(雲母)가티 빗나는 서늘한 테-블
부드러운 얼음, 설탕, 우유(牛乳)
피보다 무르녹은 딸기를 담은 유리잔(琉璃盞).
얇은 옷을 입은 저윽히 고달핀 새악시는
길음한 속눈썹을 까라매치며
간열핀 손에 들은 은(銀)사실로
유리잔(琉璃盞)의 살찐 딸기를 부서노라면
담홍색(淡紅色)의 청량제(淸涼劑)가 꽃물가티 흔들린다.
은(銀)사실에 옴기인 꽃물은
새악시의 고요한 입살을 앵도보다 곱게도 물들인다.
새악시는 달콤한 꿀을 마시는듯
그얼굴은 푸른 입사귀가티 빗나고
코사마루의 수은(水銀)가튼 땀은 벌서 사라졌다.
그것은 밝은 하늘을 빗최운 적은 못가운대서
거울가티 피여난 연(蓮)꽃의 이슬을
휘엄치는 백조(白鳥)가 삼키는듯하다.

- 이장희, <하일소경(夏日小景)>

매일신보에 실린 현상모집 광고(1919.6.22)

소품 문예 현상모집

반도 **신문학의 발달을 조장하며 문예의 취미를 일반에 보급케 하기 위하여** 매주 1차 본지에 <문예 페-지>를 설아야 내월부터 차를 실행코저 하는 바 **기 지면의 일부를 공개하여 독자의게 제공코저** 좌기의 조건으로 계속하여 원고를 모집함.

일. 작품의 종류는 **단편소설, 시조, 신체시, 일기 급 기행 기타 수필 등 소품 문예**

일. 상은 **갑(이원), 을(이원), 병(오십전)**으로 정원을 설치 안이하며 입상 이외라고 수일로 채용하는 시는 약간의 상을 증정

일. 매주 계속하여 모집함으로 투고의 기한은 정치 안이하얏스며 단편 소설은 일행 약 20자 일 편 일백행을 초치 안이함을 요함

일. 원고의 봉투에는 반드시 **<현상문예 원고>**라 주서함을 요함

개벽과 조선문단의 등단제도

신경향파 주도의 현상모집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 선자 위주의 추천제



—

네 활개를 벌리고 큰 길 우에 활보한다.
무한한 리상 위대한 사색으로
맑게 개인 푸른 한울을 전망하며
몬지가 다다구찌인 시장과 사람들의 얼굴을 굽
어다보며 훗훗히 거러간다.
허영을 장식한 집들을 볼 때
허영에 들뜨인 얼굴들을 볼 때
「참」이란 구석은 하나도 없다.

二

수레박귀가 활개를 치고 큰 길 우에 활보한다.
진심의 진행 꾸준한 궤도로
녹아 흐르는 눈(설)의 물결을 유란하며
덜커덕 덜커덕 숨쉬는 소리는 무한한 작의 거룩
한 몸씨로 훗훗히 궁구러 간다.
자기의 창작인 최후를 바라며
뜨거운 땀물이 뚝뚝 떨어질 때
「거짓」이란 구석은 하나도 없다.

三

절대로 평등인 큰길 우에 네 활개를 벌리고 활보
한다.

차별이란 한 푼 어치도 업고 큰길 우에는
걸인-귀족-매음여-귀부인-노동자-자본가-
모도가 자유로 거러를 간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오즉 이 길만은 평등주의자
다.

엄치 빠진 이 세상에는 길만이 거룩한 성자이다.

四

이 길을 거러라! 훨훨히 거러라!

붉은 가슴이 열화에 탈 때

쏟아린 눈물이 두 뺨에 흘을 때

이 자유스러운 길 우에 나아오거라.

자비한 성자의 위로를 들어라.

헤매이는 리상과 영원한 광명을 괴요이 괴요이
일너 주리라.

나아오거라. 훨훨히 거러라. 이 자유의 길을...

김창술, <대도행(大道行)>

(신춘독자문예대모집 당선작, 개벽 56호 1925.02)

신춘독자문예대모집

서민적 문학시대/문학적 취미를 일반으로 보급하게 하며 신시대의 신진작가를 환영하기 위하여

문예라는 것이 인생의 감정 혹은 정서를 순화시키는 데에,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 보다도, 문예는 **인생생활에 확평한 근거를 두어가지고, 사상향상과 생활계발에도 다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는 왔다.** 그런고로 문학은 지자들의 고민을 위노하려는 일부 혹은 일포의 전용적 수단이 아니라 전민중적 또는 **전인류의 보통적 문예**가 되어야겠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현금 문예라하는 것은 지식계급 일부의 짓인 외에는 일반으로는 문예를 사랑할 줄도 몰르고, 이해할줄도 몰랐다 이에 비릇해서 우리 개벽은 할 수 잇는대로 지면을 희생하면서도, 일반으로 기자 제씨의 **문학적 취미를 증진케 하며 따라서 독자 제씨의 창작적 재능을 숙연케 함으로써** 조선이 찾는 신진작가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월호부터 지면을 공개하겠으니 기회를 일치말고 원고를 보내주시요.

朝鮮文學建設者들



田榮澤



金炯元



卞孝宇



八峰山人
金基鎮



朴英熙

六堂崔南善



記事叅照

주요한,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 (조선문단 3호, 1924.12)

신시운동의 둘째 큰 목표는 우리말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외다. 국민문학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하면 국민적 사상을 담은 문학이란외에 국민적 언어의 미를 가진 문학이라 하겠습니까. 문자예술에 속한 어떠한 예술품을 감상한다하더라도 반드시 언어의 미를 이해치 못하고는 불가능한 것을 봅니다. 러시아의 푸시킨이 외국인의 감상을 못받는 것은 그 언어가 너무 러시아적인 닭이란 말을 드렸습니다. 산문을 가지고도 언어의 이해력(이해력보다도 감상력, 그 델리케트한 미를 맛보는 힘)이 업시는 완전한 애독자가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명론입니다. 하물며 노래에 니르러서리오. 색채의 미를 모르는 이에게 그림이 아모 미혹이 업는 것가티 언어의 미묘한 당단에 감각력이 업는 이에게 노래의 미를 닷게 할 수 업슬 것입니다. 플로벨은 소설을 쓰면서도 글자 한 자를 구하기 위하여 로는 여러 날을 두고 고심하였다 합니다. 노래의 미가 태반이 언어의 미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나 부당치 못할 줄 압니다.

그러면 과거에 과연 조선말의 미를 표현한 조선 노래가 잇섯나. 업섯다 함이 가할 것이오, 잇섯다 하면 극히 적다 함이 가하겠습니다. 약간의 시효로 말하면 한문구 조에 너무 로예가 되어 조선말의 근본미를 일헛다 할 것이 태반입니다. 민요와 동요에 니르러서는 시효보다 근본성으로 낫다 하겠스나 단조하고 유치한 란덤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날 신시가 비록 시작은 외국시의 모방, 번역에서 하였스나, 장차는 조선말의 진정한 미를 차저 드러갈 것은 의심업스며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웨? 그러케 하기 전에는 신시가 한가지 예술의 형식으로 조선에 생명을 계속할 가치와 권리가 업는 것인고로.

문장의 신인추천제에 가장
먼저 당선된 것은 1권 3호에
게재된 조지훈의 <고풍의
상>과 김종한의 <귀로>, 황
민의 <학>이다



고풍의상(古風宜裳)

조지훈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뻗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날고픈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아라고아라진정 아름다운 지고
 파란 구슬 빛 바탕에 자주 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발도 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곤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曲線)을 이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胡蝶)
 호접(胡蝶)인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娥眉)를 숙이고.....
 나는 이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인양 가락에 맞추어 흰손을 흔들어지이다

문장에서 정지용의 지도와 조지훈의 회고

조지훈군 작년 삼월에 누구보다도 먼저 당선하여 금년 이월 열한 달만에 괴팍스런 문장 추천제를 돌파하시는구료. 미안스러워 친히 만나면 사과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도의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것이란 그것이 치열한 것이고 보면 불행한 기간이나 환경이란 것이 애초에 없는 것이외다. 잘 견디고 잘 참으셨습니다. 선자의 못난 시어미 노릇으로 조군을 더욱 빛나게 하였는가 하면 어쩐지 선자도 한목 신이 납니다. 조군의 회고적 에스프리는 애초에 각소고적에 날조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고유한 푸른 하늘 바탕이나 고매한 자기살결 무시로 거래하는 일말운하와 같이 자연과 인공의 극치일가 합니다. 가다가 명경지수에 세우와 같이 뿌리며 내려앉는 비애에 artist조지훈은 한 마리 백로처럼 도사립니다. 시에서 깃과 쪽지를 고를 줄 아는 것도 천성의 기품이 아닐 수 없으니 시단에 하나의 '신고전'을 소개하며..... 뿌라-보우!

나는 이 문장지의 추천시 모집 광고를 보고 전기(前記) <화비기(華悲記)>와 이 <고풍의상(古風衣裳)>을 투고했던 바 당시의 선자(選者) 지용(芝溶)은 선후평에서 <화비기(華悲記)>도 좋기는 하였으나 너무 앙징스러워서 차라리 <고풍의상(古風衣裳)>을 택한다 하고, 언어의 생략과 시에 연치(年齒)를 보이라는 충고를 주었다. 다음번 투고에는 <화비기(華悲記)> 계열, 곧 서구적 영향의 시를 몇 차례 보냈더니 낙선되었고, 시적(詩的) 방향이 참담하니 당분간 쉬라는 평이 붙어 있었다. 이로써 선자의 뜻이 같은 계열의 작품을 밀겠다는 눈치였음은 알았으나, 당시 나에게는 민족정서를 노래한 것으로는 <고풍의상(古風衣裳)>이 단 한 편 있었을 뿐, 그 계열의 작품이 더 없었기 때문에 반년여를 투고를 중지하고 있었다. 그 동안 새로 <승무(僧舞)>와 <봉황수(鳳凰愁)> 및 <향문(香紋)>을 써 보내어 소정의 관문을 통과했던 것이다.

문장의 추천제를 통해 문단에 진입한 이들 - 김종한, 이한직, 박두진, 박남수, 조지훈, 박목월

김종한 : 우리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상성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산문으로서도 가능한 개념은 아니다. (중략) 동양예술의 특질의 하나는, 예술관이나 세계관을 적은 대상 중에 우주적인 정신으로서 감수하는 것이었다. 기림의 기상도 일권의 세계와 별목정정 사자(네글자)가 내포하고 암시하는 세계와, 제군은 그 어느 것에서 더 큰 세계를 느끼는가.

이한직 : 지금 우리 시단에서 저로서는 더욱 타협할 수 없는 요술사 한 분이 있다는 것은 형과 함께 시단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일찍이 측후소의 기상예고같은 시집을 활자화함으로서 자*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술이란 형태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자곱의 말을 새로 기억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곡해할 때 '예술이란 신기한 작난'을 하는 것이 되나 봅니다. 이해와 곡해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의 차가 생기는 것이지요. 연고로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식(올바른 지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필경 양복 입는 법을 배워낸 송미령(宋美齡) 여사
아메리카에서는
여자들은 모두 해수욕을 갔으므로
빈집에서는 망향가를 부르는 니그로와
생쥐가 둘도 없는 동무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남편들은 차라리 오늘도 자살의 위생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고
옆집의 수만이는 석달 만에야
아침부터 지배인 영감의 자동차를 부르는
지리한 직업에 취직하였고
독재자는 책상을 때리며 오직
'단연히 단연히' 한 개의 부사만 발음하면 그만입
니다

동양의 아내들은 사철을 불만이니까
배추장사가 그들의 군소리를 담아 가져오기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공원은 수상 막도날드 씨가 세계에 자랑하는
여전히 실업자를 위한 국가적 시설이 되었습니다
교도(敎徒)들은 언제든지 치울 수 있도록
가장 간편한 곳에 성경을 엮어 두었습니다
기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기림, 기상도 연작 <시민행렬>의 일부

新人登龍의 絶好機

숨은 天才여 力作을 드리고 오라!

新 春 懸 賞 文 藝 集

★ 短篇小說

一等

★ 戲曲

各一百圓

★ 씨나리오

二等

五十圓 (相當)

★ 詩

一等 十圓

★ 時調

漢詩

題、春祝、押眞、國部

★ 童話

童謠

(相當)

一等 童話十圓・其他各五圓

★ 文藝評論 (四頁以上原稿限三十頁以內)

題目 新世代의 精神 一等五十圓

應募期限 十二月十日

審 查 委 員

短篇小說—李泰俊・李箕永・李源朝
文藝評論—崔載瑞・朴致祐・時—鄭芝溶・
林和・金起林・씨나리오—安夕影・徐光霽
時調—朴鍾和・漢詩—李昇圭・童謠—尹石重
戲曲・童話—李軒求・金永壽

朝鮮日報社學藝部

注

1. 本募集會由朝鮮日報社主辦，在該社學藝部辦理。作品一經採擇，即由該部負責出版。
2. 入賞作品版權歸本報社所有。

명절날나는 엄매아배따라 우리집개는나를따라 진할마니진할아버지가있는큰집으로가면

얼굴에 별자국이숨숨난 말수와같이 눈도검벽거리는 하로에베한필을짚다는 별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
무가많은 신리(新里)고무 고무의딸이녀(李女) 작은이녀

열여섯에 사십이넘은호라비의 후처가된 포족족하니성이잘나는 살빛이매감탕같은 입술과젓꼭지는더
깜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토산(土山)고무 고무의딸승녀 아들승동이

육십리라고해서 파랑게보이는산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이뺨안 언제나흰옷이정하든 말
끝에설게 눈물을짖때가많은 큰곶고무 고무의딸홍녀(洪女) 아들홍동이 작은홍동이

배나무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가기를좋아하는 삼
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이 그득히들 할마니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모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내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
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섞 발마당에달린 배나무동산에서
고양이잡이를하고 숨굴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어둡도록 북적하니논다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마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싹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멧번이나독구고 흥게닭이멧번이나울어서 조름이 오면 아룻목싸움 자리
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잠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그림자가치는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웁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
라오도록잔다.

백석, <여우난곶죽> (조광 1권 2호 1935.12)

참고문헌

《개벽》, 《조선문단》, 《문장》, 《조선일보》

《조선시인선집-28문사 걸작》, 조선통신중학관, 1926.

《현대조선명시선》, 서정주 편, 온문사, 1950.

서진영, <신인추천제에 나타난 《문장》의 시적 지향>,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손동호,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67호, 우리문학회, 2020.

심선옥, <춘성 노자영 초기 시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3호, 반교어문학회, 2001.

이봉범, <1920년대 부르주아문학의 제도적 정착과 《조선문단》>, 《민족문학사연구》 제2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최수일, <《개벽》의 ‘현상문예’와 ‘신경향파문학’>, 《상허학보》 제20호, 상허학회, 2007.